

P27. 농가특성에 따른 복지요구도 분석

An analysis on the need of welfare by farming type

조영숙, 황대용,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Cho, Young-Sook · Hwang, Dae-Yong · Kang, Kyeong-Ha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1. 서론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대상집단의 특성이나 욕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므로 농촌지역 및 이들 주민들이 느끼는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복지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특성에 따라 어떠한 복지요구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특성별 복지지원을 위한 농촌복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조사 자료는 다단계화집락추출로 선정된 88개 시군 1,870가구의 가구주나 주부를 대상으로 2003년 11월 초 2주간에 걸쳐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영농 유형은 농가특성에 따라 전업농가, 1종 겸업농가, 2종 겸업농가로, 영농규모에 따라 대농, 중농, 소농으로 분류하였다. 복지요구도는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복지분야(대상별, 영역별), 필요 여가문화시설을 조사하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한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농가특성에 따라 중점 추진 대상별 복지 요구도는 저소득복지는 2종겸업>전업농>1종겸업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고, 노인복지는 전업농>1종겸업>2종겸업, 영유아·아동복지는 2종겸업>1종겸업>전업농 순이었다. 영역별 복지요구도는 의료비지원, 노인부양,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전업농>1종겸업>2종겸업 순이었으며, 교육비지원 요구도는 2종겸업>1종겸업>전업농 순이었다. 노인을 위한 필요여가시설로는 체육시설 61.4, 경로당 18.4%순으로 체육시설은 전업농이 62%, 1,2종은 60%정도였다. 경로당은 전업농(19.4)>1,2종겸업 순이었다. 영농규모별로 중점 추진 대상별 복지 요구도는 노인복지, 아동복지는 대농>중농>소농 순이었고, 저소득복지는 소농>중농>대농 순이었다. 여성

복지는 중농>대농>소농 순이었다. 영역별 복지요구도는 의료비지원, 노인부양은 소농>중농>대농이었고, 의료비지원, 노인부양,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요구도는 전업농>1종겸업>2종겸업 순이었으며, 교육비, 자녀보육지원, 사회복지시설확충, 여가문화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대농>중농>소농 순이었다. 농촌노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노인여가시설, 치매노인복지시설은 대농>중농>소농 순이었고,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재가복지서비스는 소농, 중농, 대농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전업농일수록 노인복지, 의료비 지원, 노인부양, 경로당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농일수록 저소득층 복지, 의료비지원, 노인부양, 경로연금, 노인일자리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면 전업농, 소농일수록 의료비지원,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등 경제적 여건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겸업농, 대농일수록 경제적 여건 향상보다는 교육비 및 보육, 여가문화시설, 노인여가시설, 치매노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농가집단의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